

# 第2의 創造主

## The Secondary Creator

宋洙九/건축사사무소 한송  
by Song, Soo-Koo

우리사회는 고도화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시대흐름에서 이완되는  
불안의 연속으로 책임감  
없는 행위와 피해의식  
속에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야행성 부류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年年歲歲 해가 지고 또 어둠이 걸히면 되풀이되는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 초조해 하는 연말년시에 소망스런 산타할아버지의 자비를 기원하는 어린이가 이제는 얼마나 될지, 또한 선물의 기쁨만으로 속아 주어 오히려 부모를 위안(?)해주는 어린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는 세상 많이 변했구나 생각한다. 하기가 요즈음의 성탄절도 사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 아니고 상업적 행위의 결과로 정착된 세속이라는 사실을 아는 어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래서인지 연말분위기는 백화점에서부터 시작이며 해바퀴에서 모다한 환풍이라도 하듯이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백화점의 정보몰이 설사 없이 날아든다. 그러나 한결같이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줄 선물용이라 하니 마음은 무겁고 초조하기만 했던 연말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입품은 극소량만이 생산시설 및 가공원자재이고 거의가 완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설마했지만 80년대 마지막 결산에서 어둡고 불안한 새해맞이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새삼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어느 해보다도 그 뜻이 다른 경오년, 1990년인 것 같다. 한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연대이고 시작이다. 되돌아 보는 지난 시간은 정말로 다사다난 했던 과거이다.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 앞에 붙는 숫자는 수의에 붙은 번호같은 느낌으로 쑥스럽기까지 한데 눈만뜨면 불러대는 이야기는 무뎠데로 무디어진 세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큰소리치는 사람은 모두가 잘났고 애국자이며 말없이 살아가는 진짜 보통사람은 어리석고 바보스럽기만한 요즈음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관결하지 못하면 역사가 선고할 때를 기다려야 하거늘 다급한 흑백논리의 아우성은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생각되며 아담의 원죄에서 부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그리스도의 고행스러운 사랑도 이제는 효험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기원하고 참회하였지만 오늘에 불안은 내일을 잇을 줄 모른다. 개신교신자 1천만명 천주교신자 250만 불교신자 1천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정도가 종교인이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평화스러운 이웃,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하나 “한국형 부패”라는 신조어의 발생지가 되었고 모든 사찰에서는 통일을 위한 기도법회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련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기적적이고 신기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북반은 금수강산이라는 이땅위의 찬바람은 아직도 냉랭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욱 간절한 기도로 정진 해야만 되겠다.

지난기간 동안 수많은 변화와 우리의 자긍심은 보다 희망적이고 자신감있는 해맞이가 되어야 하나 얼마전 발간된 “시사저널”지에는 권력이 아무리 썩어도 깨끗함으로서 사회건강을 지켜야 할 고등전문업 - 종교, 학문, 교육, 언론, 법조, 의료계의 부패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기사를 읽어 보고서는 새삼스러움 보다는 이러한 시대를 같이하는 증오스러움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시대의 삶인가 고민스러울 뿐이다. 고등전문업, 엘리트집단, 화이트칼라,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우리사회의 가치규범적 기준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기준 척도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엘빈 토플러의 멀지 않은 미래 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지난 일년의 우리사회는 고도화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시대흐름에서 이완되는 불안의 연속으로 책임감 없는 행위와 피해의식 속에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야행성 부류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20세기의 지나간 정치권력의 비리속에 악몽은 오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염치없는 파행성행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비민주적인 우리의 원죄를 스스로 인지하고 참회하지 못한 시대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랜동안 우리는 민주화란 의미도 불분명한 나의 의무보다는 남의 권리에 핏발을 세우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또한 전문직업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지랖 넓고 시샘많은 철부지 시민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면서 나의 어린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선생님은 일제말기에

나는 항상 민주화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민주화가 되지 않는데 민주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되니까 민주화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민주화

배우시던 일본인 스승께서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도 “나는 가르치는 것이 나의 직업이며 임무”라고 말씀하시고 행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시다가 패전국민으로 타의에 따라 귀국하는 것을 보고 교육자의 참된 상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노력하며 우리에게 강의하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음은 현실의 불합리성에 당혹스러움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생활인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인생관, 교육자로서의 참된 스승의 길,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관, 군인으로서의 정도, 법관으로서의 예지, 상인으로서의 도덕성, 학생으로서의 정확한 좌표, 노동자로서의 근면성실, 우리건축인으로서의 사명감 등등... 다양한 조직사회에서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책임감속에 직업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이 되살아날 때 민주화는 이룩되리라 본다. 지난 영광의 자긍심을 되찾아 불안스러운 새해에는 정치인은 사리보다는 공익에, 사도의 일로 매진해서 스승의 상이 정립되고, 군인은 오직 군인일 뿐이라는 명제속에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대가를 남이 알아주는 살아볼만한 사회가 이룩되어 다음세기를 여는 마지막 새해로서 우리건축사도 전문직업인시대의 소명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남을 닮으며 나만의 존재가치성을 부양시키는 우리의 현실은 시대적인 과정으로 접어두고 고등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속에 “제 2의 창조주 건축가”란 말이 소망스럽지 않을까?

구랍 22일 83세로 장례를 마친 다음 영면의 소식을 알게한 아일랜드 태생의 프랑스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죽음은 물론 본인 뜻은 아니겠지만 죽음의 말미까지 신문지상의 광고가득한 우리의 저명인사와는 너무 대조적이고 미래를 여는 이시대에 되새겨 볼만한 일이며 그의 죽음 또한 이시대의 의미를 갖게 한다. 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의 불확실한 미래의 기다림속에 주인공의 갈등은 오늘 우리의 군상이며 불안과 기대속에 기다리는 허상의 고도 그는 소망의 신일수도, 죽음의 사자일수도 있겠지만 기다림 그것은 우리가 격어온 지난날들이 아닐까 한다. 기다리고 초조해 싸우던 이 시대는 급진적인 변화의 해바람속에서 이시간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비참한 차우세스쿠의 마지막 모습의 사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덕으로 돌리고 전직대통령의 증언에 불만을 명패를 내던지는 헤프닝으로 달래고, 과소비 풍조는 한국형 부패의 원인으로, 노사간의

불협화음은 새삼스러이 맞보는 민주화의 상처로, 거리의 밀리는 학생의 소용돌이는 잠든자를 깨우는 기상 나팔의 우렁참으로 포용성있게 수용할 때 지난날의 충격과는 오늘의 값진 교훈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서 이무기로 변한 용이 다시 승천의 정진을 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세대에 기다리는 자, 아니면 새역사의 창조자가 될 것인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되짚어 보기도 짜증이 나는 건축사의 제반권의 보호문제와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의 평가 기준에 따른 자존심의 손상 그리고 소유의 가치보다는 존재의 가치로 우리의 위상을 맞추어야 할 의식변화의 부채등등은 기지개가 아니고 도약의 첫발을 내딛는 새아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항상 민주화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민주화가 되지 않는데 민주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되니까 민주화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민주화 민주화이다. 이런 말의 성찬도 좋지만 여기서 한번 사용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되뇌어보면 모두가 민주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철부지인지 민주화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물어부쳐 지고 당하기만 하는 단체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나친 자기비하 일지는 몰라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가 유관기관의 이기적 놀이상대이며 희생양일 때 오늘을 남의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우리는 밝히는 지렁이 일뿐이며 후손에게 버림받는 한시대의 전문인일 뿐이다. 엘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서의 생활공간은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긴장과 초조감을 갖게되며 전문적인 우리의 분야가 오늘날과 같이 제 뿔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단지 두려울 뿐이다. 뜻있는 199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도의 기다림 보다는 로버트 솔러의 적극적으로 시는 방법을 터득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불자의 불이사상으로, 다가오는 세기의 주역으로서 “제 2의 창조주 건축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대의 빠른 변화는 그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변하여 과거의 가치가 내일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오직 오늘의 가치기준으로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 길이길이 칭송되며 보존되는 낙원의 건축문화, 그것은 꿈이기 전에 나를 지키고 참다운 이웃을 보호하며 오래 오래 살아볼만한 세상이 될 때 의미있는 해바람이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때 보다 보람찬 새해가 될 것이다.